위기의 지역 농업
활로를 찾자

⑲ 진도 천년초 재배 박승준씨

‘대파 대체’ 진도 대표 소득작목 150만주 ‘무럭무럭’

박승준 진도 천년초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대파 대체작목으로 심은 토종 선인장 ‘천년초’재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0농가 참여 영농법인 결성 올 3월 26ha 식재

가공업체와 전량 수매 계약…올 12월 첫 수확

토종 선인장인 ‘천년초’는 낯설다. 제주도를 한번이라도 다녀온 이들은 ‘백년초’초콜릿 등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둘 사이의 연관성을 찾을 것이다. 둘은 ‘선인장’이라는 점에서 공통 분모를 갖고 있지만 차이점이 많다.

진도군 임회면 용호리 박승준(65)씨는 올해 ‘천년초’ 재배에 승부수를 띄웠다.

박씨는 지난 1974년부터 30여년간 농협에 몸담았으나 2006년 임회, 지산, 조도 등 3개 단위조합이 서진도농협으로 통합되며 부득이 임회 조합장직을 그만둬야 했다. 퇴직후 대파를 주작목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을 맡아 경영하던중 지난해 10월말 우연찮게 ‘천년초’라는 새로운 작목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됐다. 경기도 소재 (주)우수영생명공학(대표 임성종)에서 ‘천년초’를 생즙으로 가공해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에 납품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가격등락이 심한 대파를 대신할 수 있는 작목을 찾고 있던 박씨는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 상경해 업체를 찾아가 회사와 농장을 견학하고 진도에서 천년초를 계약재배하기로 구두계약을 맺었다.

이후 업체와 지속적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사업을 추진해 올해 1월 10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농가들의 반응이 좋아 30농가가 참여했고, 재배면적도 업체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26ha(7만8천평)에 달했다. 재배희망 농가 30명을 중심으로 ‘진도 천년초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하고 박씨가 대표를 맡았다. 참여농가들은 본격적인 재배에 앞서 지난 2월에 업체의 가공공장과 재배농장을 견학하기도 했다.

◇대체작목으로 기대모으는 천년초=“겨울대파가 가격등락이 심해 수급조절이 불안한 작목이라면, 천년초는 대파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작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월초부터 한달간 어린이 손바닥만한 천년초 종묘 150만여주를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밭에 옮겨 심었다. 지난해까지 대파를 재배하던 밭에는 현재 천년초 종묘가 가지런히 심어져 있고 새로운 싹들이 움트고 있다. 백년초가 모래땅을 선호하는데 비해 천년초는 황토땅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이 있다.

이랑과 고랑 모두를 검정색 부직포로 완전히 덮어 잡초 발생을 억제한다지만, 그래도 끈질기게 자라는 잡초는 일일이 김을 매야 한다. 농약이나 화학비료,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도 김매는 작업을 하려면 솜털같은 천년초 가시에 찔리는 것을 막기위해 비옷을 입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5월 말~6월 말에 꽃이 피고 12월부터 열매와 이파리를 수확할 수 있는데 뿌리에 ‘사포닌’ 성분이 생기려면 5년은 키워야 한다. 천년초 업체는 열매와 이파리를 이용해 생즙을 비롯해 맛사지팩, 여성 세정제, 화장품 원료 등으로 가공, 국내에 납품하거나 필리핀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3.3㎡당 평균 5천750원에 업체에서 수매하기로 계약을 맺어 수확후 판로 문제도 해결했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부직포를 깔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지출이 많았으나 진도군에서 부직포 구입비의 50%를 지원해줬다. 이와 함께 진도군은 울금·야콘·구기자 등을 대파 대체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진도대파 대체작목으로 육성=“앞으로 천년초를 진도군의 경제작물로 육성하려면 군의 지방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뒤따라야 합니다”

박 대표는 올해 천년초 가공공장을 유치하고 나아가 앞으로 2013년까지 관내 재배면적을 330만5천800여㎡(100만평)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선구적으로 박대표를 비롯해 30농가에서 천년초 재배에 나섬에 따라 진도 관내 타 농가에서도 주의깊게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천년초 재배 농가에서도 대파를 대신할 수 있는 작목으로 기대가 높다.

박승준 대표는 “일반인들은 우리나라에 선인장이 있겠냐 하겠지만, 오래전부터 바닷가 담장 틈새같은 메마르고 모진 곳에서 천년초가 자라는 것을 봐온터라 생소하지는 않다. 영하 20도의 혹한에서도 얼어죽지 않아 전국에서 재배규모가 늘고 천년초 시장도 폭발적으로 커질 것으로 본다. 지역에서 선구적으로 시작한만큼 반드시 성과를 올려 대파를 대체하는 소득작목으로 자리잡고 ‘농업의 희망’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섬유질 풍부한 토종 선인장 천년초

건강식품·화장품·치약·비누 등 원료로 쓰여

‘천년초’(학명 Opuntia Humifusa)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선인장이다. 일명 ‘겨울 선인장’, ‘손바닥 선인장’ 또는 뿌리에 사포닌 성분이 많고 인삼 냄새가 나서 ‘태삼(太參)’으로 불린다.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백년초’를 비롯해 대부분의 선인장과 식물들은 난대성이지만 천년초는 유일하게 내한성 식물이어서 영하 20도 이하의 혹한에도 얼어죽지 않는다.

성분역시 백년초는 껍질에 독성이 있어 열매만 사용하지만 천년초는 껍질과 열매 등에 유익한 성분이 많다. 지구상 2천500여종의 선인장 가운데 유일하게 줄기와 열매, 뿌리를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둥근 타원형의 천년초는 5월 하순부터 6월 하순까지 노란꽃이 개화하며 하루만에 씨방으로 맺어져 열매를 만든다. 열매무게는 10g정도이며 짙은 자색을 띤다. 뿌리는 줄기의 가시자리에서 나오며 10~20㎝깊이로 파고 들어가 옆으로 뻗으며 자란다.

국내 연구진의 연구결과 변비예방과 장운동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 함유율이 30%로 곡류(1.19~10.35%)나 채소류(0.99~7.42%), 과실류(0.19~2.19%)에 비해 훨씬 높고 칼슘(멸치의 9배), 비타민C(알로에의 7배), 노화 방지 기능이 뛰어난 플라보노이드(율무의 26배) 등 영양성분이 풍부하다. 이에 따라 천식의 이완작용, 항 위염효과, 당뇨 합병증 예방, 고지혈증 개선효과 등이 있다. 80년대 토종 선인장의 탁월한 효과가 알려지면서 마구잡이로 채취돼 한때 멸종위기를 겪기도 했다.

천년초를 이용한 상품역시 건강 보조식품을 비롯해 화장품, 미용비누, 치약, 전통차 등 다양하게 개발돼 국내 건강식품 시장의 점유율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